

주여, 듣고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성경말씀: 단9:1-19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국제 시장' 영화를 봄, 우리나라의 지난 65년 역사를 담은 보통 사람들의 영화 19세기말, 20세기초 국민의 무지와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세계정세 무지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 통치, 1945년 8월 15일 광복, 나라의 분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

1) 수도 서울과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갔다가 맥아더가 이끄는 UN군의 9.15 인천상륙작전(오전 6시, 2시간), 9. 28 서울 수복, 2) UN과 미국은 정치적 타협을 원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신속한 북진 통일을 원하며 10월 1일 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함. 3) 10월 19일 평양 점령, 10월 26일 압록강, 4) 30여 만(100만 명)의 중공군이 국군의 후방에 잠복함. 5) 인해전술로 인해 후퇴하며 모든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함경남도 흥남으로 퇴각함. 피난민들도 마찬가지로 흥남으로 집결함. 6) 미국 함선들은 12월 17일부터 빠져나갔고 소수의 수송선만 남았다. 7) 아몬드 장군이 이끄는 10군단 흥남 도착, 무기를 신고 떠나려 하던 차에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씨의 간청으로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움, 8) 47명이 타기로 되어 있던 수송선 메리디스 빅토리 호에 14,000명이 탑(기네스 북). 9) 영화 속에서 1943년 생 8살 윤덕수와 그의 부모들과 피난민들이 눈보라 속에서 살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0) 수천 명의 미군이 죽으면서 이루어진 흥남부두 철수 작전으로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목숨을 유지하였다.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주의 인간 드라마이다(기억해야 한다, 은혜를 은혜로 대접해야 사람이다). 11)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건졌지만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인력 자원을 독일과 베트남에 광부로, 간호사로, 군인으로 팔아가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세대가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룩하였다. 1961년 이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산전수전을 겪고 70세가 된 윤덕수의 고백: "아버지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대의 항변 아닌 고백, 우리 자식들이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해방둥이 세대는 가난을 이기는 데 성공하였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이란 존재는 가난을 이기는 이가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이는 1명도 안 된다"고 했다. 이 영화는 가난을 이긴 세대에겐 기억이지만 가난을 모르는 다수 한국인들에겐 '뉴스'일 것이다.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고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세대, 박정희 대통령 세대이다. 이 위대한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산층, 마이 카, 아파트, 민주와 복지 제도를 70년 만에 건설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인명 희생이 따랐기에 가슴이 아프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온갖 인간적 비극을 당하고도 의연히 버티면서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잘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희생한 이 세대의 치명적 실수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 자녀들이 풍요를 누리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이 근사한 나라가 공짜로 생긴 존재로 알도록 방치한 점이다. 투표권을 가진 성인 중 15%, 약 500만 명이 6.25 남침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원인이 무엇인가? 수24:31

이스라엘이 지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며 고통당하는 이유 역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을1:2-3).

자랑스러운 대한미국의 역사이다. 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만드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이다.

대한민국 성공의 이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건져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리핀, 미얀마, 태국, 그런데 한국을 쓰신다. 2030년 세계 7위 국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한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엄한 독재 정치 하에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 자기 국민을 먹이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정치인이요, 아버지 수령인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악의 근원) 발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부흥한 시대를 사는 이 민족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여, 듣고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영적인 기상도가 맑지 못하다.

한국 부흥의 가장 큰 요인: 기독교, 참 하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이고 잘 살게 되어 있다. 수천 년 동안의 잡신 우상 숭배하던 민족,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제물포 입국, 복음 선포, 지식 교육, 의료 선교, 개화

이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기독교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 20%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

교회의 기본을 잊음(구원), 심각한 기복 신앙, 오순절 은사주의, 종교 통합, 교회의 기업화
가장 큰 원인: 성경의 부실,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 본문, 번역자들의 사상, 이런 부실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을 당하고 있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국가”

사회적 기상도가 맑지 못하다

물질만능주의: 세상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우리는 청지기요, 순례자와 나그네이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렸다. 구원은 못 받아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한다. 믿음의 전달 단절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동성애 합법화, 안티 기독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징계하신다(히12).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히12:8)

BC 2000년경의 아브라함, BC 1000년경의 다윗, 유대인들의 우상숭배(바알), 하나님 대적

BC 606년에 바빌론 침공, 바로 이때에 10-15살의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감(단1:1-4).

하나님은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등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들의 포로요, 신하였지만 그 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함.

느부갓네살(단2:47; 3:28; 4:34-35, 37)

다리오(6:26-27)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비전을 갖는 사람

다니엘의 성공 비결

1.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다(단1:8).
2.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단6:4, 10).
3.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단9:2), 83세경,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알고는 곧바로 백성과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
4. 어떤 하나님인가?
 - a. 두려우신 하나님(9:4), b. 백성의 죄로 인해 징계하시는 하나님(5-11), 5,6,10(죄), 11 심판, 13 그래도 기도 안 함, c. 용서하시는 하나님(16)
5.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
6. 바로 이 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 a. 주여,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간구를 들어주소서(17-18). 통일, 강력한 지도자(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백성의 회개, 교회의 회복, 성경의 회복, 개개인의 소원 성취(요일5:14-15)
 - b.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행하시되 속히 행하소서(19).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